

“후보자 줄세우기는 정치 폭력”

강수훈 후보 “광주시장 특정 후보 지지 강요 구태정치 표본” 구청장·지방의원 입지자들 “거부시 폭언·문자 폭력 시달려”

“정치 신인에게 줄세우기부터 가르치는 선배 정치인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양심과 정리가 살아있는 세상’을 외쳤던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17일 강수훈(34)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심한 듯 ‘지방선거 줄 세우기 구태’를 비판했다.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지율 ‘강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연소 민주당 구청장 출마자인 강 후보의 눈에 비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강 후보는 “당내 광주시장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요구가 있었다”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정책연대도 없었다. 오로지 온갖 인맥을 동원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병풍 역할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한 광주시장 후보의 지지 대열에 참여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요청받았고, 당내 경

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 광장한 부담이 됐다”면서 “구태정치의 표본인 특정후보의 지지선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줄세우기 구태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기초의회 예비후보는 “최근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출마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에서 선배 정치인이 한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한 후보들을 질타하기도 해 선배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지역의 기초의회 예비후보는 “지역위원회 일부 간부가 특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일부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이 같은 줄세우기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특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면서 “광주시 집행부와 시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원 출마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하루 앞둔 17일 줄세우기 논란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도 떠올랐다. 강기정·양향자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일부 민주당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입후보자의 지지 선언은 이 후보에 대한 줄세우기의 지시 선언”이라며 “대부분 이용섭 지지를 강요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후보는 “두고 보자”는 등의 폭언과 문자메시지 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후보 측은 “입후보자들 일반시민이든 누구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다”며 “줄 세우기 표현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처사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줄 세우기 논란이 비단, 일부 후보만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부 후보진영이 다른 출마자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위원회에서는 강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요양병원 화재 대응 훈련
력을 높이고자 훈련을 시행했다.

17일 광주 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소방관이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 남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에서 초기 대응 능력(광주남부소방서 제공)

전남도,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33명 직무교육

전남도는 2018년 제12기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33명에 대해 가족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고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지자

체 현장에서 가족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족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첫 시행됐다. 신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

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복무 기간은 3년이다. 전남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지난해까지 46명이었으며 올해는 15명을 추가 확보해 61명으로 늘었다. 순수하게 늘어난 15명은 지자체 현장 가족방역관 부족에 따른 방역업무 추진 예로 등을 감안해 시군에 배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상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반려동물 전용산책로 조성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반려동물 5대 정책으로 ▲시민참여형 반려동물 동행 기본계획 수립 ▲동물복지 확산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 인프라 개편 ▲생태관광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반려동물 전용산책로 조성하고 길고양이 포용 정책으로 ‘길냥이 급식소’와 캣맘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면서 “반려동물 인프라 개편을 위해 현재 위탁 운영중인 동물보호소를 점진적으로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공약은 단순히 반려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부터 생명 일반까지 동물과의 동행을 통해 생명존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철학이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여성·아이들 당당한 광주만들기 공약”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리·경제시장 28선의 12대 공약’ 중 9번째인 ‘여성과 아이들이 당당한 광주 만들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미세먼지·교통 안전·급식·안전시설·인터넷과 관련해 아이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한 ‘5대 안심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또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늘려 여성이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여성일자리지원종합센터 설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조기 도입 ▲정부와 공공부문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등을 세부지침으로 제시했다.

양향자, 교육·복지·안전분야 7대공약 발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제 SNS방송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교육·복지·안전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국제 SNS방송국 설립 ▲4564(45~64세) 복지정책 마련 ▲시립도서관

확충 ▲도시-대학 상생 프로젝트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지진 안전도시 ▲생활복지형 안전도시 구축 등이다.

양 후보는 “광주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랜드마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선 마케팅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SNS방송국을 설립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인들과 소통하며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광주를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민호 “서주석 차관 해임靑에 촉구하자”



윤민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윤정현 광주시장과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서주석 차관 사퇴 촉구를 위한 공동 입장을 밝히고 즉시 해임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18 특별법 주무부처에 속하며 5·18외국 당사자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5·18 특별법 후속조치와 이행은 불가능하다”면서 “서 차관은 1988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국방부 산하 511연구위원회 전담실무위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우진 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인 임우진 서구청장의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의 무소속 돌풍’이 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청장은 1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청장의 무소속 출마에 따라 서구청장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19일께 광주지역 구청장 5곳의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구청장 경선 후보들이 누구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임 청장은 광주시당 후보 검증에서 소명을 통해 ‘부적격 예외자’로 인정돼 중앙당 최고위에 회부됐으나 두 차례 보류 끝에 최종 부적격 처리됐다. 과거

두 차례 유증운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이 끝내 갈림돌이 됐다.

이에 임 청장은 “기초단체장 공천은 각 지역 시·도당이 하는데, 광주시당이 결정한 사안을 중앙당이 뒤집는 것은 본질적인 권한을 가진 광주시당의 심사권을 중앙당이 승인권을 앞세워 무력화한 것”이라며 반발하며 중앙당에 제심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소속 출마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 태국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 참가 대대적 홍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8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Sport Accord Convention)’에 참가해 광주세계수영대회 소개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FINA(국제수영연맹) 출신으로 마글리오네 회장과 코넬 마르를 레스쿠 사무총장 등 집행부가 출동해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광주세계수영대회 홍보에 힘을 보탤다.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은 국제경기연맹총연합(GAISF), 하계올림픽국제경기연맹연합(ASOIF), 동계올림픽경기연맹연합(AIOWF),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증 국제경기연맹연합(ARISF), 독립인증경기연맹연합(AIMS) 등 국제경기연맹 대표와 핵심인사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스포츠계 최대 권위의 연례행사로 ‘스포츠계의 UN 총회’로 불린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개막 사흘째인 17일(현지 시간) 외신기자 인터뷰와 국제

스포츠계 인사 면담,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알렸다.

특히 올림픽 출전 선수 연합과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2020로잔 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 2024파리 하계올림픽 조직위, 2028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조직위 등 스포츠 유관기관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년담양

2018

담양대나무축제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

2018
05.02wed ~ 05.07mon

죽녹원 및 관방제림 일원